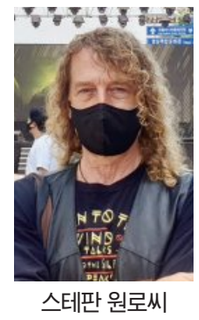
“5·18은 한국 민주주의 상징…5·18 정신 헌법 수록 지지”

5월 광주 금남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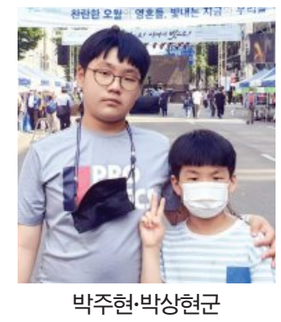
독일 중년 “광주 한복판에 와 있어 감격”
美 언론인 “5·18을 광주에 가두지 마라”
‘5·18 정신’ 전하려 자녀 동행 경기 주민

아스콜트씨

손성탁씨


스테판 원로씨

구관영·이하영씨


박주현·박상현군

김명운·조순혜씨 부부

“한국에서 다시는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 세대가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합니다.”

제42주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광주 금남로는 5·18을 온몸으로 느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독일에서 온 50대 남성, 미국에서 온 언론인,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5월 광주’를 만나러 온 이들은 한목소리로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 “5·18 정신 헌법 수록 지지”라고 밝히며 5·18을 치켜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일부는 “5·18 광주를 광주에만 가둬선 안 된다”는 애정어린 조언을 했다.

자신을 독일에서 온 아스콜트(Askold·55)라고 밝힌 남성은 “5·18 40주년에 꼭 광주에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오지 못했다”며 “벼르고 별렀던 5월 광주 한복판에 내가 와있다는 게 감격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스콜트씨는 독일 내 난민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단체 비아둑트(Viadukt)에서 활동하는 교사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대 시절인 1990년대 비디오테이프로 5·18 관련 영상을 접했다고 한다. 그는 “광주 시민들이 같은 나라 군인들에게 저항도 못하고 쓰러지고 있었다. 참혹하고, 정말 끔찍한 장면이었다”며 “한국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5·18을 비롯한 시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것임을 미래세대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 시민들은 폭력에 지지 않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등을 놓고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미국 미네소타 출신으로 사진기자로 활동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스테판 원로(Stephen wunrow·63)씨는 “광주 정신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정신이나 마찬가지”라며 우회적으로 5·18 정신을 광주에 가두는 것을 경계해달라고 조언했다.

원로씨는 “1999년 처음 5·18행사에 참석한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5월이면 금남로에 왔다”며 “20여년 전에는 과거를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은 다 함께 한마당 즐기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광주에 온 것도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다. 민주주의의 현장인 이곳을 꾸준히 앵글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두고는 “5·18 정신과 가치를 모든 한국인과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했다.

박호림(36·경기도 화성시)씨는 이날 아들 주현(13)·상현(9)군의 손을 꼭 잡고 금남로에 나왔다.

박씨는 “아버지가 5·18을 직접 겪으셨던지라 5월이 되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5월을 맞아 충장로에 살고 계신 아버지를 뵙고 아이들에게도 5·18 현장을 몸소 보여주려고 모처럼 광주에 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아버지를 통해 1980년 5월 당시 참혹했던 광주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으며, 자신도 그 뜻을 이어 5·18 정신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장에 오기 전 아이들에게도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씨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찬성하나,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되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최근 이슈로 부상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만난 광주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했다.

손성탁(65·북구 두암동)씨는 “주먹밥을 먹으며 42년 전 장면을 떠올렸다. 5월이 되면 당시 전남대 등지에서 교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얘기했다. 손씨는 “진작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번 세대도, 다음 세대도 오월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고 했다.

구관영(22·남구 봉선동)씨와 이하영(21·서구 풍암동)씨는 “5·18 기억을 계속 되새기고 그 정신을 알리는 일인 만큼 백번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도록 쉽고 명확하게 수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구 충장동에서 온 김명운(88)·조순혜(86)씨 부부는 “운이 좋았는지 80년 5월 우리는 잠시 여수에 있었다. 그 뒤로 광주에 와서 보니 말 그대로 민간인들을, 시민들을 짐승 취급했더라”며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보수정권이든 민주당 정부든 5·18을 기념하는 데 다른 목소리를 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금남로·민주묘지 추모 열기 절정

5·18민주화운동 42돌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가 추모열기로 절정을 이뤘다.

1980년 민주화를 열망하는 광주시민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금남로 거리에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전야제 등 행사를 통해 오월의 열기를 느끼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왕복 5차로인 금남로 거리 양쪽에서는 1980년 5월을 재현한 연극과 퓨전국악, 버스킹 공연 등 ‘오월 시민난장’이 펼쳐져 인파가 몰렸다.

오월 블록맞추기, 오월 그림 채색하기 등 각종 체험행사 부스도 열렸다. 42년 전 광주의 대동정신을 알린 주먹밥 나눔행사에는 한때 50여명이 길게 줄을 서는 등 인기를 끌었다.

오월풍물단도 망월동묘역, 조선대, 전남대 정문, 금남로 등 주요 사적지를 행진하면서 추모의 열기를 이끌었다.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오월 영령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려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5월 들어 16일까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9만6307명으로 집계됐다.

단체 참배에 나선 학생들은 해설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묘지 이곳 저곳에서 오월영령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추모했다.

또 하루 일찍 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는 5·18 유족들도 눈에 띄었다.

고 윤승봉 열사의 묘지를 찾은 여동생 윤연숙(68)씨는 “전두환이 고통도 안받고 떠나서 원통하다”면서 “지금도 떳떳히 5·18유공자라고 말 못한다”고 한스러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80년 5월’ 의료인은 어떻게 시민을 치료했나

5·18기록관 20일 구술증언집담회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다친 시민들 치료에 앞장선 의료인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오는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자리한 5·18기록관에서 5·18의료인 활동 구술증언집담회가 열린다. 집담회에는 당시 김성봉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장, 문형배 전남대 의대교수, 안성례 광주기독병원 간호감독, 오경자 조선대학교 간호부장이 나선다. 또한 김영진 전 전남대병원장, 손민자 전 전대병원 간호감독도 함께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인에게도 존엄한 삶 보장을” 전국 장애인들은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